

# 북스

Books

## 21세기 韓·中·日 음식문화 전문록

### 차폰 잔폰 짬뽕

주영하 지음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짬뽕'은 어느 나라 음식일까? 한국의 중국요리에도 짬뽕과 우동, '다쿠양'(단무지)이 나오고, 일본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 식당에서도 짬뽕을 시키면 다쿠양이 무료로 나온다. 한국식 자장면을 일본에서도 먹을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 주영하의 신간 '차폰 잔폰 짬뽕'은 동아시아 음식 문화 속에 담겨있는 역사를 추적한다. 같은 음식을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에 숨어있는 역사 때문이다. 지난 1910년 조선이 일제에 강제 병합된 후, 조선에 살던 화교들은 일본 화교들과 더욱 밀접하게 교류하게 된다. 또 일본이 중국 침략의 고두보로 삼았던 상하이의 화교들도 일본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들 국가의 중국인들은 1945년까지 일제라는 동일한 정치경제적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짬뽕은 당시 나가사키의 시카이로라는 중국식당에서 유행했다. 달구어진 냄비에 기름을 두른 다음 돼지고기와 닭 뼈로 우린 육수를 넣고 삶아 면을 말아먹는 음식이 탄생한 것이다. 짬뽕이란 이름에도 역사가 있다. 흔히 짬뽕은 많은 것을 마구 뒤섞어 놓은 혼잡한 상태를 뜻한다. 말레이어에 '짬퐁'이란 단어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베트남어에도 이 단어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또 타이완 고산족 언어의 '짬뽕'도 비슷하게 쓰인다. 이들 국가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가 침략한 지역이거나 식민 통치를 경험한 곳이다.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에 '짬뽕'이 전해진 것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관련된다. 사진은 중화요리를 소재로 한 영화 '북경반점'의 한 장면.

나가사키 잔폰, 중국의 차폰 등으로 불리던 짬뽕이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또 이 책은 시대에 따라 전통의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전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맛인 매운맛이 세계화를 통해 변했다.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무교동 낙지볶음, 매운 통닭, 곱창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 음식의 고유한 매운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세계화는 음식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방식과 일상 생활의 깊숙한 차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라져가는 음식들도 있다. 제주도에는 더 이상 풍파지가 없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 등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사라져 사람의 똥을 먹고 자란 돼지를 사람이 먹고, 다시 그 똥을 돼지가 먹는 생태적 자율 시스템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저자는 음식 문화에 담긴 역사, 시대적인 의미를 통해 미래의 음식문화로 '로컬 푸드 시스템의 복원'을 강조한다. 소규모 지역권역에서 주민들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 소비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아야초 유기농산물 산지가 환경이 보존되고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는 과정을 소개하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계절·1만6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도시 흥악화' 책임은 정치가·기업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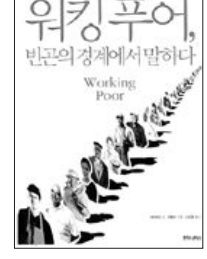
재벌 한국인으로 프랑스 정부 건축사 및 도시계획가, 사회도시학자인 페오도로 폴 김이 그동안 유럽과 한국에서 했던 작업과 연구 활동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묶어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를 펴냈다.

저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된 도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눈물 흘리게 하는 도시, 조상의 흔적이 사라져 가는 도시, 그런 도시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만들어 내고 옹호하는 정치가, 학자, 기업에게 흥악한 도시를 만든 책임을 묻는다. 책에서 저자는 철학, 인문학, 사회학, 미학 등에서 도시에 사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인간이 우선인 도시를 이루는 핵심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창·1만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워킹 푸어...

데이비드 K 슈플러 지음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고?" 풀러처상을 수상한 작가 데이비드 K. 슈플러가 쓴 '워킹 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는 대답은 "아니다"이다. 철저한 취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쓴 책은 일을 해도 가난한 이들 즉 '워킹 푸어'(Working Poor·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심층 리포트다. 빈곤문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편견을 깨뜨리며 새로운 접근법을 취했다. 저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이민노동자,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빈민 계층, 이혼여성, 싱글맘 등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가려진 이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은 '빈곤과 안락한 삶'의 경계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다. '워킹 푸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 사례는 이 책에 등장하는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한다. 세차장에서 일하는 남자는 자신의 승용차가 없고, 은행에서 수표 정리를 맡은 여성의 통장 잔고는 2달러 2센트다. 이처럼 '일하는 빈곤층'이 생겨나는 이유는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 저자는 이를 허름한 아파트의 악순환으로 설명한다. 허름한 아파트는 그 속에 사는 아이의 천식을 악화하고, 천식 약화로 구급차를 부르는 빈도가 늘어나며, 지불할 수 없는 의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아이 어머니의 신용 기록이 나빠지고, 그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 이자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게 되면 이 여성은 제시간에 출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직장을 자주

## 왜 죽도록 일해도 가난한가?

한이 승진에서 제약을 받아 허름한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빈곤과 노동의 악순환' 사례를 낱알이 분석하면서 해결책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저자 역시 해결책 찾기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종합적 처방"을 강조한다. 임금구조, 건강보험, 육아, 주거비용, 학교교육 등 여러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방안을 마련해야 워킹 푸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역시 워킹 푸어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70% 이상이 자신을 워킹 푸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책은 미국의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하나 워킹 푸어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머니티스·1만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책



▲인생기출문제집=안철수, 우석훈, 심상정, 이상은, 명진선, 홍수연 등 이름값 하는 한국 사회 멘토급 선배들이 만든 인생에 대한 질문 모음집. 스물한 명의 선배들은 연애와 취업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서부터 '무엇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인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범우주적인 화두까지 총 88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북하우스·1만4천원>



▲게으름을 죽여라=2000년대 한국 문단에서 '백수 문화'의 시대를 연 작가 구경미씨의 두번째 소설집. 나이만 먹은 채 학원가를 전전하는 로커 지망생, 게으름 탓에 취직을 못한다고 여긴 할머니 때문에 '게으름 치료 센터'에 수용되는 취업준비생... 우리주변 루저들의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풀어냈다. <문학동네·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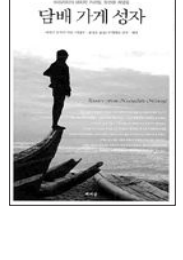
▲악에 관한 세 편의 대화=대산세계문학총서 84번째권. 19세기 러시아 철학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책으로 그가 떠나기전 마지막 해에 출판한 저술이다. 솔로비요프의 철학적 사유의 과정과 예술적인 참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류의 삶과 역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실재를 드러내는 '악'의 존재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문학과학사·1만원>



▲삼국지와 게임이론=불멸의 고전 '삼국지'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임이론이 만났다. 최고의 지략가들이 삼국시대를 엄격한 게임이론의 논리를 통해 '삼국지' 속 역사와 인물을 새롭게 풀어본다. 영웅들의 합종연횡, 눈부신 전략, 왕조의 부침 등을 게임이론에 입각해 분석하고 이를 지금의 기업에 빗대 해석했다. <한스미디어·1만3천500원>



▲엄마가 희망입니다=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담고 있는 모성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풀어내어 가정과 교회,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책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외신통한교회 목사인 김영복씨는 '엄마'와 관련한 회상, 사랑, 이해, 용서, 모성 등 5가지 주제를 자신이 실제로 만난 인물들의 이야기와 소설속 내용을 섞어 설명하면서 기독교에서의 모성을 재조명했다. <포이예마·1만천원>



▲담배가게 성자=20세기 인도의 성자 중 한 사람으로 추앙되는 니사르가닷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제자 라베쉬 발세카가 정리한 책. 마하라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뒷골목에서 담배를 팔아 파는 일을 했는데, 그의 깨달음은 진정한 지혜는 학력과 관계없음을 증명한다. <책세상·1만8천원>



▲투구꽃=지금까지 낸 시집 네 권에 꽃을 제목으로 삼을 만큼 꽃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담양 출신 최두석 시인의 여섯번째 시집. '꽃에게 길을 묻다' 이후 6년만에 낸 시집으로 '겨울장미' 등 60여편의 시를 4부로 나눠 묶었다. 시인은 더욱 고요하고 깊어진 시어로 자연과 인간을 노래하고 있다. <창비·7천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경제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분양** 수완롯데마트바로 옆 **임대** 수완아울렛

※ 2010년 2월 오픈예정 ※

**1층** 골프의류  
**2층** 아웃도어  
**3층** 골프용품

▶ 넓은주차장  
▶ 에스컬레이터 설치  
▶ 유명브랜드, M,D  
사/원/모/집  
남·여 0명 (• 20대 후반~30대 초반)  
기본급+성과급  
부동산 관련학과 졸업, 이력서 지침

**\* 분양문의 \***  
**(유)코리아랜드건설**  
☎ 959-1033, 010-7723-1033

**대인동상일부동산**  
☎ (41)223-1140, 5210 111-002-2532  
(광주은행 신봉영,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엄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근린시세/월별	대표이사 010-7570-7525
소매지	대지/건물
당양동	대450,24900
남구동	대1046,23006
동촌동	대686,22006
향원동	대300,211023
순천시	대1191,21501
송정동	대468,22050
남동	대421,21126
송정동	대348,23961
송정동	대13477,242780
송정동	대2068,210151
송정동	대2171,22810
신안동	대553,22865
개원동	대298,23534
정호동	대161,22239
월곡동	대224,22655

속박시세/상가	손해연이자 010-9611-2817
소매지	대지/건물
북문동	대508,21389
아수시	대357,21042
신안동	대227,22288
북문동	대11741,21327
신안동	대353,21134
화산동	대1285,23261
신안동	대588,21812
송정동	대533,22496
송정동	대13477,242780
송정동	대2068,210151
송정동	대2171,22810
신안동	대553,22865
개원동	대298,23534
정호동	대161,22239
월곡동	대224,22655

공방/모지	택배수출장 018-4640-2142
소매지	대지/건물
동촌동	대1887,21323
월곡동	대2893
월곡동	대1682,21040
곡성동	대3040,23658
화산동	대4770,21658
월곡동	대1644,21849
곡성동	대47030,23992
월곡동	대4297,21513
남구동	대2470,24333
남구동	대3874,21036
월곡동	대704,21618
송정동	대7402,21381
송정동	대506,21561
송정동	대46,2125
송정동	대25212,21

공방/모지	택배수출장 018-4640-2142
소매지	대지/건물
오서동	대58,2170
송정동	대42,250
송정동	대87,2980
송정동	대34,257
송정동	대128,2324
송정동	대27,268
송정동	대33,293
송정동	대11,292
송정동	대88,2140
송정동	대60,2116
송정동	대157,281
송정동	대71,2117
송정동	대46,257
송정동	대66,2125
송정동	대70,2169

공방/모지	택배수출장 018-4640-2142
소매지	대지/건물
송정동	대1887,21323
송정동	대2893
송정동	대1682,21040
송정동	대3040,23658
송정동	대4770,21658
송정동	대1644,21849
송정동	대47030,23992
송정동	대4297,21513
송정동	대2470,24333
송정동	대3874,21036
송정동	대704,21618
송정동	대7402,21381
송정동	대506,21561
송정동	대46,2125
송정동	대25212,21

공방/모지	택배수출장 018-4640-2142
소매지	대지/건물
송정동	대1887,21323
송정동	대2893
송정동	대1682,21040
송정동	대3040,23658
송정동	대4770,21658
송정동	대1644,21849
송정동	대47030,23992
송정동	대4297,21513
송정동	대2470,24333
송정동	대3874,21036
송정동	대704,21618
송정동	대7402,21381
송정동	대506,21561
송정동	대46,2125
송정동	대25212,21